

신심·재력 두루 갖춘 새인물



15일 출범 중앙신도회장 내정 송재건씨는

15일 창립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내정자인 송재건씨(59·중앙산업 대표)는 그동안 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실무단장 해창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지난 2월 "중앙신도회장은 정치지향적 인사를 배제하고,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족구성원 전체가 독실한 신심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총무원은 송 회장내정자를 위의 세가지 기준에 대체로 합당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조건인 정치성 배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불교계에 낯선 인물인데 사회활동도 기업활동 외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본적지인 충

중원산업 등 6개 기업 소유 22년째 일요일예불 빠짐없어 정치투명성 아직 검증안돼

북지역에서 대전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충북역도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회장내정 이후 조계사 주변에서는 여권의 대선주자 가운데 한사람과 전 청와대고위위사 등과

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재정능력은 일단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문화회관 중원산업 경주운천관광호텔 중원산업 중원농산 중원농진 등의 기업체 대표직함을 지니고 있다. 중앙신도회에 20여원을 출연하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셋째 조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일요일마다 부인 오세양씨와 함께 서울 충은동의 육천암에 들러 2~3시간의 기도를 거르지 않고 있다. 육천암 주지 성원스님은 "22년전부터 육천암에 나오고 있다"며 "재가신도로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송씨를 평했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창립된 직할교구(조계사) 신도회장 선출직후 기자들의 사진촬영과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회장수락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신도회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총무원과 전반적인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조울 부분이 더 있음을 시사했다. 총무원실무단은 송씨의 이력서를 비롯한 자료요청에 "아직 결재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시론

장엄한 생명의 질서

얼마 전 영국의 한 연구소는 유전자 주입에 의하여 양의 복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미국의 또 다른 연구소는 작년 이미 양의 복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생명복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에 나온 것이었는데, 그 가능성이 이번에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물론 유전자 조작에 의한 품종 개량에서 보듯이 생명 복제에 관한 연구도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복제 왜 위험한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조망없이 진행되는 과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지적인 이익이 전

기통을 아무리 잘 다룬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집이 지어질 수는 없듯이, 부분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여도 그 부분의 지식만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 세계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하는 한, 개개 생명체를 그 하나만 때어 놓고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하여도 생명의 전 존재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생명 복제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된다. 유전자 주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의 과정을 간신히 모방함으로써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는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 생명의 전 존재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과학이 생명의 질서를 마음대로 재단한다는 일은 마치 그 쓰임새를

국회 불교관련 대정부질의 요지

“대장경전산화 6억 추가요청” 조영재의원

“경주 古都 보존특별법 촉구” 임진출의원

지난 2월 28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자민련 조영재의원(대전유성)과 신한국당 임진출의원(경주)이 불교관련 대정부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영재의원은 "팔만대장경 전산화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불교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추가사업비 6억원을 특별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했다. 총 120억원 중 올해 소요되는 대장경 전산화사업비는 모두 18억원. 이중 고

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 자체부담금이 8억원, 올해 정부 지원금 4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6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문체부에 추가사업비 6억원의 지원여부를 질의하게 된 것.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해 문체부에 8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절반인 4억원만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영수 전 문체부장관은 이에대해 "예산편편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응답했다.



◇조영재의원

◇임진출의원

조영재의원은 또 불교관계법의 개정과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배분문제, 사찰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문화재 보수, 폐사지 복원 등 불교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임진출의원은 문화재보호법과 고도제한법에 묶여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경주시민들을 대변해 "고도(古都)보존특별법"을 제언했다. 임의원은 또 "경북 경

주, 전북 익산, 충남 공주·부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들이 지닌 문제점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경주가 무분별한 개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문화재보존의 원칙을 담은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고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다만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는 현행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여러 법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경 기자

“최소소유 인정 정재음성화 막자” “수행·전법비용 종단차원 분배를”

선우도량 ‘삼보정재와 수행자...’ 수련결사 현장

“경전 율장에 나타난 삼보정재와 출가 수행자의 윤리성”이라는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종호스님(동국대 강사)은 “불법승보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즉 불교교단의 재산을 총칭하는 것이 삼보정재”라고 전제하고 “무소유는 출가자의 자제화림과 내외적 성찰이 완성된 ‘자제할 수 있는 소유’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밀원스님(불학연구소)은 “시대에 따라 최소한의 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현봉스님(선우도량 공동대표)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 속에 이미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미

무소유가 아니다”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불교교단에 나타난 삼보정재 구조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이라는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선 진일스님(감로암 주지)은 “(법화경) 사상을 토대로 스님의 건전한 생산 및 경제활동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무소유만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삼보정재가 음성화되는 문제를 파생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진일스님의 주장에 대해 법성스님(대승사 주지)은 “소유의 인정 및 생산활동 권장은 수행자의 출가의미가 퇴색될뿐 아니라 수행에 방해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변의 소유를 인정하되 승가의 기본윤리인 무소유정신은 고수해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또 “출가수행자의 경제행위와 삼보정재의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관련기사 116호 1·3면)를 토대로 발표한 보각스님의 제3발제에 대해 성관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실존은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나 소유와 무소유에 대한 개념이 승단내에서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분쟁의 불씨가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스님은 “상황은 다각 계층에 따른 소유는 인정하되 공(公)개념으로써의 소유가 필히 삼보정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우도량은 이번 수련결사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4월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에 대해 기획좌담을 마련,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사사=도필선·김정은 기자



김용정 (前동국대 교수·'과학과 사상' 편집인)

모든 채 총이나 칼을 들고서 장난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전체 생명계내지는 전체 우주에 대한 안목없이 과학의 성과에 급급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생명 질서의 엄숙함을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연은 무진한 연기의 한 자락으로서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다. 그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난 우리는 그저 잠시 우리의 몸을 자연에 위탁하는 것뿐이지 그 자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점을 지각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중중무진 인연법의 세상

그리고 그 반성의 기초 위에서 미래가 설계되어야 한다. 과학의 지엽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과학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밀접한 정보에 기초하여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반성은 과학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하여야 한다는 보살 정신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 '97년도 제1기 연구과정 교육안내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문 불전강좌와 함께 범어, 팔리어, 티벳어 등의 불교원전연구과정 및 불교어학연수 과정을 개설, 아래와 같이 '97 제1기 일반연구회를 모집합니다.

불교어학연수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불교어학	H-01	불교한문강독	慧能 著, 六祖壇經	김영욱 (고려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격주 목19:00~21:00
	S-01	범어어학연수	Introduction to sanskrit	이지수 (동국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매주 토 14:30~16:00

불교어학과정 중 P-01 팔리어어학연수와 T-01티벳어어학연수는 하계 계절 학기에 다시 개설됩니다.

기초학습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강사	강의시간
기초학습	102-1	불교학개론	최봉수 (동국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매주 토11:30~13:00
	103-1	인도불교사상사	문을식 (동국대학 강사, 본원 상임연구원)	매주 토 13:00~14:30

불교원전연구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한국불교 문헌강독	K-11	한국불교금석학	역대고승비문 (고려시대편)	지관스님 (본원 원장)	격주 목19:30~21:00
	S-11	한문원전	원효술, 大乘起信論 疏	지관스님 (본원 원장)	매주 금 19:30~21:00
불교논서	S-11-1	범어원전	世親 撰, 具舍論	이종철 (정문연 교수, 본원 전임교수)	매주 금 17:00~19:00
	S-11-2	범어원전	安慧 著, 唯識三十頌	이지수 (동국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격주 토 16:00~18:00
연찬	S-11-3	범어원전	龍樹 著, 廻諍論	김성철 (동국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격주 토 16:00~18:00
	T-11	티벳어원전	Kamalasila 撰, 修習次第	히일범 (진각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격주 수 19:00~21:00
근본경전강독	P-11	팔리어원전	D.Andersen, A Pali Reader A Pali Glossary	최봉수 (동국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격주 수 19:00~21:00

■ 제출서류 : 입회원서(일반) 수강신청서 2부(본원 소장양식) ■ 접수처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접수기간 : 1997년 3월 말일까지 서울시 중로구 동승동 192-10(우당기념관 2층) ☎ 765-9602~3, 745-1663 FAX 765-5673